

한국사회복지학

일반논문

국내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수준과 영향 요인*

안재진⁺

(가천대학교)

최운선⁺⁺

(남서울대학교)

변미희

(백석대학교)

권지성

(침례신학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개입양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수준과 관련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공개입양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발달측면에서 관심을 받아왔으나 지금까지 국내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중단연구』의 제5차 양적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입양아동들의 학업성취도는 초등학생 때에는 일반아동과 큰 차이가 없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 일반아동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의 전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급과 모의 학력, 연장아 여부, 아동의 자존감과 학교적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목별로 구체적인 영향요인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입양아동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필요한 후속연구들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주제어: 입양아동, 학업성취도,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이 연구는 2015년 중앙입양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연구과정을 지원한 중앙입양원 관계자들과 연구에 참여한 입양아동, 입양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제1저자, ⁺⁺교신저자

1. 서론

입양은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요보호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대리보호서비스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입양아동은 한부모 가정이나 시설보호, 위탁보호와 같은 다른 형태의 대리보호 아동에 비해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Bohman and Sigvardsson, 1980; Fergusson et al., 1995).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2007년부터 국내입양가정의 입양수수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 의료급여 혜택 제공, 입양휴가제 실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국내입양은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에는 연간 국내 입양 건수가 60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5).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내입양 아동들이 잘 성장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입양에 대한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입양을 고려하는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을 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인들 중 절반이 넘는 비율(50.6%)이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들고 있다는 점(김유경·변미희·임성은, 201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양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여러 발달 영역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인데, 이는 아동·청소년기의 학업성취 수준이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의 최종 학력수준과 학업을 마친 후 얻게 되는 직장의 질, 그리고 평생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입양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는 입양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공개입양가정의 아동들이 그동안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를 살펴보기에 연령적으로 적절치 않았고, 또한 학업성취도보다는 아동의 정서, 행동, 사회적 관계 등 다른 발달측면들이 더 중요한 적응의 지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수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최운선 외, 2008; 안재진 외, 2009; 안재진 외, 2015a; Ahn et al., 2017), 자아개념(변미희 외, 2009), 사회성 및 교우관계(최운선 외, 2008; 최운선 외, 2016) 등이며, 또한 입양아동의 주요한 발달환경에 해당하는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 입양관련 의사소통(박미정, 2009; 안재진 외, 2010; 안재진, 2013), 형제자매 관계(권지성 외, 2014), 가족기능(Ahn and Lee, 2012)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입양아동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입양부모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궁금함과 불안도 공존한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는 지능지수(IQ)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능지수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van Ijzendoorn와 Juffer(2005)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입양아동들의 IQ는 입양되지 않고 시설에 남아있는 아동들이나 친생가족에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입양되지 않은 일반아동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IQ가 양육환경에 따라 변화가능하며, 입양가정의 환경이 입양아동들의 IQ 수준을 높이는 데 유익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학업성취도 면에서 보면, 입양아동들은 입양아동의 출생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비입양아동들이나 친생가족 내 형제자매들에 비해서는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Maughan et al., 1998; van Ijzendoorn and Juffer, 2005), 일반아동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Ijzendoorn et al., 2005; van Ijzendoorn and Juffer, 2005).

입양아동의 유능성(즉, IQ)과 실제 학업성취에서의 차이는 입양으로 인한 격차(adoption decalage)를 암시하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아동기 중기에 일부 입양아동들은 친생부모의 상실을 다루느라 애쓰기 시작하고(Brodzinsky, et al., 1992), 이러한 애도의 감정이 학교에서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해결되지 않은 상실은 침투적 사고 및 깊은 상념과 관련되며, 이는 직면한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제한한다(Main, 1999, van Ijzendoorn and Juffer, 2005, 재인용). 입양격차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입양 전 극심한 박탈을 경험했거나 늦은 나이에 입양된 연장아동의 경우, 학업성취를 완전히 따라잡기(catch-up)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van Ijzendoorn and Juffer, 2005).

한편, 평균적으로는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가 일반아동들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모든 입양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며, 입양아동 집단 내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양아동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입양사후서비스를 통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수준에 대한 연구는 비입양아동과의 비교와 입양아동 내의 차이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왔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비교집단에 비해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양아동 집단 내에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즉, 왜 어떤 입양아동들은 잘 적응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일부 입양아동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비교집단의 설정은 어떤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아동과의 비교보다는 입양아동이 입양되지 않았을 경우 살았을 환경(위탁가정이나 시설아동)의 아동과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Christoffersen, 2012), 이들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기에는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반아동 또는 준거집단(norm group)을 대상으로 비교를 실시하였다. 실제로 입양아동을 위탁가정 및 시설아동, 친생가족 내 형제자매들과 비교한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실시한 Christoffersen(2012)의 연구에 따르면 3,300개의 입양관련 연구 중 단 17개만이 이러한 비교집단 선정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이 중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를 이들 집단과 비교한 연구는 단 7개에 불과

했고,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비입양아동과 비교한 62개의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van Ijzendoorn and Juffer, 2005; van Ijzendoorn et al., 2005)에서도 입양아동을 생물학적 형제자매 또는 입양 후 친생부모에게 되돌아간 아동과 비교하거나 시설아동과 비교한 연구가 각각 3개씩 포함되었으며, 입양아동을 입양가정 내 형제자매와 비교한 연구가 5개였고, 나머지 연구들은 모두 일반아동 또는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입양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양아동과 학업성취도를 비교할 수 있는 시설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2차 자료가 거의 없으며, 또한 시설아동이나 위탁가정아동의 경우 대부분이 미혼모 출생자녀인 입양아동들과 달리, 영아기부터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드물고, 친생부모 및 가족특성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실상 다른 형태의 비교집단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측정된 일반아동을 준거집단으로 활용하여 입양아동의 상대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입양아동 내에서 학업성취도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영향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입양아동들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준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공개입양가정 아동들의 학업성취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양아동들의 학업성취도는 일반아동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수준인가?

둘째, 입양아동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2. 문헌검토

1) 입양아동과 비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 비교

입양아동과 비입양아동의 각 발달영역에 대한 비교연구들은 지금까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발달영역에 따라 또는 동일한 발달영역이라도 어떤 연구에서는 입양아동이 비입양아동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입양아동들이 비입양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다(안재진 외, 2015b). 이처럼 입양아동과 비입양아동을 비교한 연구들이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입양아동의 발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입양아동이 영유아기 및 학령전기에는 비입양아동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학령기 이후에는 비입양아동들에 비해 적응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많은 입양아동들이 비입양아동보다 문제행동과 적응문제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Brodzinsky et al., 1998).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개별 연구에 따라,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선정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므로, 본 절에서는 이들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입양아동과 비입양아동의 학업성취 비교결과를 검토하였다.

17,767명에 달하는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비입양아동과 비교한 62개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van Ijzendoorn and Juffer, 2005; van Ijzendoorn et al., 2005)를 보면 입양아동들은 입양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는 그들의 친생형제자매나 시설에 남아 있던 또래들에 비해 인지발달(IQ)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의 학업성적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입양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비입양 형제자매나 동일한 환경의 비입양아동들에 비해서는 IQ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학업성적이나 언어능력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장애를 나타내는 비율도 더 높았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62개의 연구들은 대부분 0세-18세까지의 입양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고, 일부 성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띤 표본(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을 이용하여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입양청소년들과 비입양청소년을 비교한 Miller 등(2000)의 연구에 따르면, 입양청소년들은 연구에서 살펴본 모든 영역들, 즉 학업성취와 학습문제, 약물남용,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신체건강, 다툼, 부모에 대한 거짓말 등에서 위험성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수를 보면, 입양청소년의 학업성적(school grade)은 비입양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무단결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내에서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적 자체만 보면 효과크기는 .2 이하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한편,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평균 차이에 기반한 효과크기(effect size)는 크지 않았으나, 결과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중간 범위에는 입양청소년과 비입양청소년이 약 1:1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분포의 끝 쪽(극단치)에는 입양청소년과 비입양청소년의 비율이 3:1 이상으로 입양청소년들이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었다. 즉, 더 많은 입양청소년들이 비입양청소년들에 비해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입양아동의 발달결과를 위탁가정 및 시설아동, 친생가족 내 형제자매들과 비교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Christoffersen(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를 이들 집단과 비교한 7개의 연구 중 표준편차에 대한 정보가 결여된 3개 연구를 제외하고 남은 4개의 연구 중 2개 연구에서 입양아동이 이들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2개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외된 3개 연구의 경우에도 남은 연구들과 같은 수준의 표준편차를 가정하면, 세 연구 모두 입양아동의 학업성취가 비교집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대상 입양아동의 연령은 6세부터 14세까지 다양하였으며, 입양당시 연령에 대한 정보가 결여된 1개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1세 미만에 입양된 아동들이었다.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다시 한 번 비교집단 선정에 따른 이슈를 제기한다. 입양아동들은 동일한 환경의 비입양아동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지만 입양아동이 원래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살았을 환경의 아동들, 즉 한부모 가정이나 위탁가정, 또는 시

설에 남아있는 아동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인다는 것이다(Maughan et al., 1998; Miller et al., 2000; van Ijzendoorn and Juffer, 2005; van Ijzendoorn et al., 2005; Christoffersen, 2012). 또한 Miller 등(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입양아동들이 평균적으로는 비입양아동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임상범주에 속하는 아동의 수는 비입양아동에 비해 훨씬 더 많다.

지금까지 검토한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들은 입양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양아동들과 비입양아동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상당히 다른 유형의 입양아동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Howard et al., 2004), 또한 이들 연구가 모두 외국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양아동들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국내 입양아동들 대다수는 미혼모 자녀들로 친생모가 자발적으로 양육을 포기한 아동들이며, 이들은 입양 전 일시보호소나 위탁 가정 내에서 양육되다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입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설에서 머물다가 입양된 경우라도 입양 전 학대나 방임, 극도의 결핍 등을 경험한 아동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입양의 유형을 아동복지체계로부터의 입양(1,341), 국내 영아입양(481), 국외입양(89) 등으로 구분하여 친생가족과 사는 아동들(175)과 비교한 Howard 외(2004)의 연구결과는 국내 입양아동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미국 내 영아입양 아동과 친생가족 내 아동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6-18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신체건강, 정신건강,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비교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양아동들은 친생가족과 사는 아동들에 비해 특히 학교적응에서 많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부모에 의해 평가되었는데, 문제행동평가척도(Behavior Problem Index)에서 친생가족 내 아동들이 6.2개의 문제를 가진 것에 비해 아동복지체계에서 입양된 아동들은 11.9개, 국내 영아입양된 아동들은 9.1개, 국외입양 아동들은 9.4개의 문제를 가진 것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또한 특수교육 참여, 낙제, 유급 등 학교기능에 있어서도 아동복지체계에서 입양된 아동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국내 영아입양된 아동들과 국외입양 아동들도 친생가족 내 아동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ward et al., 2004). 이 연구는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양 전 별다른 결핍이나 학대 경험이 없는 출생 직후 입양된 아동들도 비입양아동에 비해 학교적응상 더 많은 문제들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입양과 관련된 이슈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애도와 상실, 분리,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는 동안 행동문제들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Smith et al., 2000).

그러나 일부 입양아동들이 낮은 학업성취와 학습장애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입양아동들과 비입양아동들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입양아동들은 정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Miller et al., 2000).

이는 입양아동들 내에서도 많은 편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입양아동 집단 내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입양아동들은 동질한 집단이 아니며, 입양아동 집단 내에서도 발달결과에 있어 많은 차이가 존재하다. 이에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의 지표들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학교성적(school grade, school achievement),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학업수행(school performance) 등 여러 관련 개념들을 포괄하여 그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능지수(IQ)는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입양아동의 인지 발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입양아동과 비입양아동의 지능지수는 영아입양집단과 연장아입양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van Ijzendoorn et al., 2005), 입양아동의 지능지수는 시설아동이나 친생가족 내 형제자매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van Ijzendoorn and Juffer, 2005; Christoffersen, 2012), 입양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 당시 연령과 입양 전 학대, 방임, 결핍 등의 불우한 경험(adverse experiences)은 입양 후 발달결과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입양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입양당시 연령은 입양아동의 지능지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학업성취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Ijzendoorn et al., 2005). 즉, 생후 1년 이내 입양된 아동들은 비입양아동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1년 이후 입양된 연장아동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Ijzendoorn et al., 2005). 또한 입양 전 영양실조, 학대, 방임 등을 경험한 입양아동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 비해 지능지수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성적은 크게 뒤떨어졌다(van Ijzendoorn et al., 2005).

입양아동의 조사 당시 연령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입양청소년의 연령집단을 세 집단(10-13세, 14-16세, 17-19세)으로 구분하여 비입양아동과 비교한 결과, 학교성적이 10-13세 집단과 14-16세 집단의 학교성적이 17-19세 집단에 비해 또래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et al., 2000).

아동의 성별은 입양아동의 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설명요인으로 성별의 영향력은 일관되지 않지만, 차이를 나타낸 연구의 대부분은 입양남아들이 입양여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결론내린다. Bohman(1970)은 10-11세 입양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입양된 남아들은 비입양남아들에 비해 학교적응도가 낮고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양여아들은 비입양여아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Brodzinsky et al., 1984, 재인용). 영국의 국가데이터인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NCDS)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7세 때의 읽기와 11세의 일반적인 학업능력에서 입양여아들은 입양남아들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ughan et al., 1998). 6-11세 입양아동 130명을 연령, 성별, 인종, SES, 가족구조, 형제자매수 등의 변인에서 매칭한 비입양아동 130명과 비교한 Brodzinsky 외(1984)의 연구에서도 입양아동은 학업성취를 포함한 초등학교행동척도(Hahnemann Elementary School Behavior Subscales)

의 모든 하위척도에서 비입양아동보다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나타냈는데, 6-7세 아동의 경우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좋은 적응결과를 보였고, 8-9세와 10-11세 아동의 경우 여아들이 남아보다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라 성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는 유의미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van Ijzendoorn et al., 2005).

입양부모의 교육수준은 7학년에서 12학년 사이의 입양청소년과 비입양청소년의 발달성취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Miller et al., 2000), 입양아동의 언어기능의 변량을 3~4% 가량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Ijzendoorn et al., 2005). 또한 Maughan 외(1998)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적 계층과 물리적 환경,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7세 아동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아동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입양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도 입양청소년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13세-17세 입양청소년 70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좋은 부모-자녀관계는 인구학적 변인과 입양 전 학대/방임 경험을 통제한 후에도 입양아동의 무단결석, 유급, 약물남용 등의 문제행동 수준을 낮추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hitten and Weaver, 2010). 흥미로운 것은 좋은 부모-자녀 관계가 언어와 읽기 성적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수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Whitten and Weaver, 2010). 이는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교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입양아동이 아닌 일반아동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 심리적 변인들이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자아존중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아·정현희, 1999; 김종한, 2001; 김기에·김소은, 2005, 김현주·김병훈, 2007, 재인용). 또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성별과 교육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학업성취도 면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김병훈, 2007).

학교는 아동의 학업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setting)으로서 아동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사회적 자본의 일부로서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김병훈, 2007).

이처럼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입양 시 연령과 입양 전 경험(학대와 방임, 박탈 등)과 같은 입양관련 요인들과 일반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성별, 연령) 및 부모(교육수준, 소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아동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부모와의 관계, 학교적응)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의 한계로 인해 투입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수를 제한할 필요성에 따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부와 모의 교육수준 등)은 아동의 학업성취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투입변수를 선정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의 제5차년도 양적조사¹⁾ 자료 중 아동이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응답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는 2006년도에 구축된 공개입양가정의 입양아동패널로 2008년도에 2차 양적조사와 2010년도에 3차 양적조사, 2012년도에 4차 양적조사가 행해진 바 있다. 공개입양 초기였으므로 패널구축 시 대다수의 아동들이 영유아기 아동들이었으나, 5차년도 조사 당시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5차년도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에서와 달리 아동의 학업성취 뿐 아니라 자존감, 학교적응, 부모님과의 관계, 삶의 행복도 등 다양한 심리변인들에 대한 자료수집이 함께 이루어졌다. 연구조사과정 전반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졌다(IRB No.: 1044396-201505-HR-024-01)

5차년도 조사의 자료수집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입양가정을 사회복지학 및 아동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입양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사에 앞서 전체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아동응답의 오염효과를 막기 위하여, 아동과 부모는 분리된 공간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반아동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서 주요한 심리적 변인은 국내 아동들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전국조사가 실시된 최근의 주요 실태조사(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등)와 동일한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전체 아동 수는 133명이며,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7명과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동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은 105명이었는데 이 중 장애가 있는 9명 가운데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적장애 및 뇌병변 아동 5명을 제외한 1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동일척도를 사용한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학업성취도 평균과 비교하였는데,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는 전국 16개 시도 일반가정에 거주하는 총 4,000여 가구의 아동(0~18세)을 대상으로 가구방문을 통해 이루어진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로 지역별, 소득계층별, 아동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그 중 아동용설문지에 응답한 9~17세 아동의 응답결과와 비교하였다. 아동용설문지에 응답한 9~17세 아동 및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52.6%, 소득수준으로는 일반가구가 95.2%를 차지했으며, 양부모가구가

1)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의 제5차년도 양적조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재진 외(2015b)를 참조하기 바람.

85.9%를 차지했다. 가구주의 연령대는 9-11세 아동의 경우 30대(24.0%)와 40대(69.8%)가 가장 많았으며, 12-17세 아동의 경우 40대(73.4%)와 50대 이상(18.8%)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9-11세 아동의 경우, 4년제 대졸(40.1%)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96.6%가 고졸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12-17세 아동의 경우 고졸(47.8%)이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 졸업이 34.8%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96%가 고졸 이상이었다. 가구원수는 9-11세 아동 가구는 평균 3.81명, 12-17세 아동 가구는 3.75명이며, 가구 내 18세 미만 아동 수는 각각 1.77명, 1.66명으로 나타났다.²⁾

2)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학업성취도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양아동 집단 내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 및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아동성별, 학교급,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입양관련 특성(연장아 여부, 입양 전 양육환경), 아동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및 주요 환경과의 관계(부모님과의 관계, 학교적응) 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지난 학기 본인의 학업성적을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각각에 대하여 10점 척도(1점-매우 못함, 10-매우 잘함)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2) 독립변수

① 인구학적 특성

아동의 성별은 여아(0)와 남아(1)로 더미코딩하였으며, 학교급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기준변수로 중학생 여부와 고등학생 여부를 각각 더미변수로 생성하여 투입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무학(1)부터 대학원 이상(6)까지의 서열변수로 측정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월 가구소득을 조사당시(2015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를 투입하였다.

2)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미숙 외(2013) 참조.

② 연장아 여부

연장아 여부는 입양당시 연령을 생후 12개월 미만(0)과 생후 12개월 이후(1)로 구분하여 더미코딩하였다.

③ 입양 전 양육환경

입양 전 양육환경은 태어난 병원, 입양기관 일시보호소,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친생부모 또는 가족의 집, 기타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집단보호를 받는 일시보호소와 아동양육시설을 시설환경(1)으로, 나머지를 가정보호(0)로 더미코딩하였다. 기타로 응답한 2명의 아동은 위탁후 입양, 일시보호소 후 위탁가정 등, 응답내용이 가정보호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정보호에 포함시켰다.

④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서 활용한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정적인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10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투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⑤ 부모님과의 관계

아동이 평가한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서 활용한 주보호자 관계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척도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등 부모님과의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총 8개의 기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 8개의 문항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보호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나타낸다.

⑥ 학교적응

입양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2014)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된 20문항 척도(하위척도별 5문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학습활동),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교우관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한 20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정적인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특성은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 아동은 총 100명, 69가정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1명~2명의 입양아동이 포함되었으나 3명인 가정이 2가정, 4명인 가정이 1가정 포함되었다.³⁾ 입양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60%를 차지하여 여아를 선호하는 국내입양가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표 1> 입양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명		빈도	백분율(%)	계	
성별	남	40	40.0	100(100.0)	
	여	60	60.0		
학년	초등 4학년	12	12.0	100(100.0)	
	초등 5학년	18	18.0		
	초등 6학년	18	18.0		
	중 1학년	15	15.0		
	중 2학년	8	8.0		
	중 3학년	12	12.0		
	고등 1학년	13	13.0		
	고등 2학년	3	3.0		
고등 3학년	1	1.0			
연장아여부	영아입양	74	75.5	98(100.0)	
	연장아입양	24	24.5		
입양 전 양육환경	태어난 병원	3	3.1	97(100.0)	
	입양기관 일시보호소	43	44.3		
	위탁가정	32	33.0		
	아동양육시설	13	13.4		
	친생부모 또는 가족의 집	4	4.1		
	기타	2	2.1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입양 당시 월령	98	0개월	79개월	9.46	14.065
현재 월령	100	118개월	209개월	158.08	24.655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48명, 중학생이 35명, 고등학생이 17명이었으며, 아동의 약 25%가 생후 12개월 이후에 입양된 연장아동으로 분류되었다. 아동들의 입양 전 양육환경은 입양기관 일시보호소(44.3%)와 위탁가정(33.0%)이 다수를 차지했다. 입양 당시 연령은 생후 1개월 미

3) 한 가정 내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을 뽑을 경우 오차항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하여 인접 오차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만부터 최대 79개월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월령은 9.5개월 정도였다. 조사 당시 평균 연령은 만 13세 가량이었다.

<표 2>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의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계
부학력	대학원 이상	28	41.2	68(100.0)
	대졸	24	35.3	
	고졸	14	20.6	
	중졸	1	1.5	
	초졸	1	1.5	
모학력	대학원 이상	13	18.8	69(100.0)
	대졸	35	50.7	
	고졸	19	27.5	
	중졸	1	1.4	
	초졸	1	1.4	
입양유형	유자녀 입양	47	70.1	67(100.0)
	불입 입양	20	29.9	
거주지역	서울	16	23.2	69(100.0)
	경기/인천	33	47.8	
	충청/대전	4	5.8	
	전라/광주	11	15.9	
	경상/대구	5	7.2	
주관적 경제 계층감	상	2	2.9	69(100.0)
	중상	12	17.4	
	중	34	49.3	
	중하	19	27.5	
	하	2	2.9	

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입양부 연령	68	44세	68세	52.66세	4.913
입양모 연령	68	41세	60세	49.91세	4.861
동거가족수	69	3명	10명	4.75명	1.265
월소득	66	150만원	1500만원	529만원 (중위소득 500만원)	285.211
결혼기간	68	14년	38년	23.62년	5.507

입양부모들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 이상이였으며, 특히 부의 경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아서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입양이 전체 70% 이상으로 일반적인 입양부모집단보다 유자녀 입양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자녀 입양의 경우 입양사실을 숨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공개입양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거주지역은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입양부모들은 자신들의 경제수준을 중(49.3%) 또는 중하(27.5%)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실제 평균 소득은 529만원(중위소득 5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입양부모의 연령은 40대~60대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부의 평균연령은 53세, 모의 평균연령은 50세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부모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다. 평균 동거가족 수는 4.75명이며, 평균 결혼기간도 23.62년으로 자녀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 편이다.

이러한 입양가족의 특성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나타난 일반아동가구의 특성과 비교해보면, 여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동거가족 수도 약 1명 정도 더 많았으며, 평균 가구소득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입양가족은 일반아동가구와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양아동과 일반아동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가구 내 특성들이 입양아동의 발달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입양아동과 일반아동의 비교는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입양아동과 일반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비교

입양아동과 일반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평균을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결과와 비교하였다. 단일평균 t 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입양아동은 수학과목에서 준거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입양아동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수학성적은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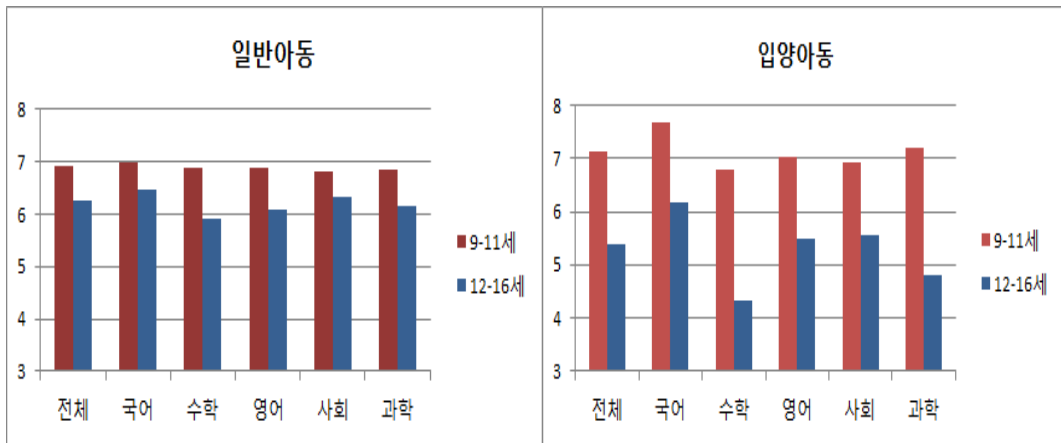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서는 성별과 연령(9-11세와 12-17세)에 따라 집단별 평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하위집단별로 비교를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아들의 수학성적에서만 준거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른 과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아들의 경우 일반아동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급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입양 초등학생들은 일반아동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국어성적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의미하게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준거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본인의 성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아동 집단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인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입양아동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수학과목에서 그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표 3> 입양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학업성취도

구분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준거집단 ^a 평균	t값	
전체	전체	97	6.21	1.854	6.43	-1.189	
	국어	99	6.90	2.097	6.63	1.276	
	수학	98	5.54	2.525	6.19	-2.545*	
	영어	99	6.34	2.556	6.30	.169	
	사회	95	6.22	2.089	6.47	-1.161	
	과학	98	5.98	2.324	6.35	-1.578	
성별	남자	전체	39	6.23	1.813	6.40	-.583
		국어	39	6.67	1.965	6.48	.593
		수학	39	5.72	2.523	6.28	-1.391
		영어	39	5.97	2.539	6.31	-.826
		사회	36	6.19	2.081	6.39	-.564
		과학	39	6.26	2.197	6.43	-.493
	여자	전체	58	6.19	1.896	6.47	-1.126
		국어	60	7.05	2.182	6.79	.923
		수학	59	5.42	2.541	6.10	-2.045*
		영어	60	6.58	2.560	6.30	.857
		사회	59	6.24	2.112	6.55	-1.137
		과학	59	5.80	2.405	6.26	-1.480
연령	9-11세	전체	45	7.13	1.440	6.91	1.041
		국어	48	7.69	1.690	6.99	2.859**
		수학	48	6.79	2.062	6.89	-.330
		영어	47	7.03	2.293	6.87	1.279
		사회	47	6.91	1.875	6.81	.384
		과학	48	7.21	2.000	6.85	1.242
	12-17세	전체	52	5.40	1.807	6.25	-3.377**
		국어	51	6.16	2.185	6.48	-1.056
		수학	50	4.34	2.353	5.92	-4.749***
		영어	52	5.48	2.493	6.08	-1.733
		사회	48	5.54	2.083	6.33	-2.622*
		과학	50	4.80	1.990	6.16	-4.833***

* p<.05, ** p<.01, *** p<.001

a. 준거집단: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9-17세 아동



<그림 1> 입양아동과 일반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 비교

3) 국내 입양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입양아동과 일반아동과의 비교는 단순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입양아동 내에서도 많은 편차가 존재하므로, 아동 및 주위 환경의 어떠한 요인들이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및 과목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 첨도, 분산팽창계수(VIF값)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욕구소득비의 첨도값이 5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제곱근으로 변환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전체 학업성취도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37.7%로 비교적 높았으며,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장아동은 영아입양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과 주요 영향요인은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어과목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34.6%이며, 국어과목의 경우 중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초등학교 고학년보다 낮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p=.082$). 고등학생의 국어교과목에 대한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초등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이 높을수록 국어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연장아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목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33.0%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연장아동의 경우 수학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자존감과 수학과목의 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과목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31.4%였으며, 영어과목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존감과 학교적응수준이 높을수록 영어과목의 학업성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목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사회과목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20.5%로 다소 낮은 편이다. 과학과목에 대한 설명력은 36.9%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과학과목에서도 자존감이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가운데 거의 모든 교과목에 일관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아동의 자존감과 학교급 변수였다. 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서 자존감이 높은 아동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는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성취도 변수가 객관적인 성적이 아닌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학업성취도이므로, 자존감이 높은 아동들이 본인의 학업성취도 또한 높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서 학교급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과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동이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표 4>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전체			국어			수학		
	b	s.e.	t	b	s.e.	t	b	s.e.	t
상수	4.790	3.048	1.572	8.295	3.504	2.367 **	.859	4.206	.204
성별 (기준=여)	.284	.342	.832	-.189	.395	-.478	.694	.476	1.458
중학생 (기준=초고)	-1.096	.373	-2.936 **	-.765	.434	-1.763	-1.753	.520	-3.371 **
고등학생 (기준=초고)	-1.132	.472	-2.400 *	-1.374	.556	-2.470 *	-1.681	.677	-2.483 *
모학력	.465	.230	2.020 *	.951	.267	3.566 **	-.072	.323	-.223
육구소득비 (변환)	.338	.360	.941	.106	.423	.251	.948	.507	1.870
연장아여부	-1.012	.408	-2.479 *	-.882	.472	-1.870	-1.398	.572	-2.446 *
입양 전 시설보호 (기준=가정보호)	.093	.347	.268	-.250	.398	-.627	.535	.478	1.121
자존감	1.217	.512	2.378 *	.662	.581	1.139	1.573	.697	2.257 *
부모와의 관계	-.415	.429	-.968	-.656	.498	-1.319	.275	.597	.461
학교적응	-1.498	.622	-2.408 *	-2.583	.724	-3.567 **	-.773	.868	-.890
F비	6.316***			5.717***			5.333***		
R ² (Adj.R ²)	.447(.377)			.420(.346)			.406(.330)		

* p<.05, ** p<.01, *** p<.001

〈표 4〉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계속)

변수	영어			사회			과학		
	b	s.e.	t	b	s.e.	t	b	s.e.	t
상수	-.278	4.320	-.064	4.522	3.844	1.177	4.756	3.892	1.222
성별 (기준=여)	-.154	.475	-.324	.190	.446	.427	.818	.440	1.860
중학생 (기준=초고)	-.528	.521	-1.014	-1.358	.482	-2.819 **	-1.811	.481	-3.762 ***
고등학생 (기준=초고)	-.521	.657	-.793	-1.082	.612	-1.767	-2.382	.629	-3.788 ***
모학력	.819	.323	2.539 *	.177	.299	.591	.188	.300	.628
육구소득비 (변환)	.500	.503	.993	.339	.467	.726	.594	.474	1.253
연장이여부	-1.094	.555	-1.973	-.898	.539	-1.666	-.740	.524	-1.413
입양 전 시설보호 (기준=가정보호)	.363	.480	.756	.103	.440	.234	.206	.444	.463
자존감	2.336	.700	3.339 **	1.725	.650	2.654 *	1.529	.645	2.371 *
부모와의 관계	-.445	.598	-.745	-.907	.563	-1.612	-.548	.554	-.988
학교적응	-1.730	.859	-2.013 *	-.575	.795	-.723	-1.337	.805	-1.661
F비	5.068***			3.198**			6.148***		
R ² (Adj.R ²)	.391(.314)			.299(.205)			.441(.369)		

* p<.05, ** p<.01, *** p<.001

나머지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장이 입양여부는 전체 학업성취도와 수학교과목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어와 영어과목에서는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p <.10). 연장이동들의 전체 학업성취도와 수학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영아입양집단의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모든 과목에서 연장이 여부는 학업성취도와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학업성취도와 국어와 영어 같은 어학과목에서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구소득비로 측정된 월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그와 근접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 공개입양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가늠해 보고, 둘째, 입양아동 집단 내에서 학업성취도 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의 제5차년도 양적조사 자료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한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활용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는 아동(0~18세)을 양육하는 전국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실태조사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아동 중 본 연구의 대상아동 연령과 일치하는 9~17세 아동과 비교가 이루어졌다. 아동종합실태조사결과에 제시된 아동의 전체 및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초등학교 때까지 일반아동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중학교 진학 이후 일반아동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일반아동들도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비해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입양아동들은 일반아동과 비교했을 때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수치상으로도 유난히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러한 현상은 수학과 과학 교과목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입양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일반적으로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기존 메타분석 결과(Miller et al., 2000; van Ijzendoorn and Juffer, 2005; van Ijzendoorn et al., 2005)와 일치한다. 외국의 경우 입양 전 학대나 방임, 시설보호로 인한 결핍 등을 경험한 입양아동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국내 입양아동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국내 입양아동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미국 내 영아기에 입양된 아동들도 아동복지체계를 통해 입양된 아동보다는 긍정적인 발달결과를 보이지만 친생가족과 사는 아동들에 비해 높은 문제행동수준 등 부정적 발달결과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Howard, et al., 2004)에 비추어, 국내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입양아동과 일반아동과의 이러한 차이는 학령기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하며, 성인지 초기에 이르러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Brodzinsky et al., 1987). 일부 입양아동들은 아동기 중기가 되면 친생부모의 상실을 다루느라 애쓰기 시작하고(Brodzinsky et al., 1992), 이에 수반되는 애도 감정이 학교에서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van Ijzendoorn and Juffer, 2005).

입양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사춘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입양관련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한 아동의 해석은 아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Gulden and Bartels-Rabb, 1996). 또한 10대 청소년들은 자신과 닮은 사람들(부모와 형제)을 살펴봄에 자신이 그들과 어떤 점에서 닮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평가함으로써 정체감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입양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막연한 갈망이나 공허감을 느낄 수 있다(변미희 외, 2015). 이러한 친생부모에 대한 애도와 상실이라는 입양관련 과업과 입양관련 이슈가 사춘기에 미치는 영향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 저하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입양아동과 일반아동의 발달결과에서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성인지 초기에 이르면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Brodzinsky et al., 1987), 학업성취도의 경우 중고등학생 시절의 학업성취도가 아동의 최종 학력 및 이후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양아동 집단 내에서 학업성취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학업성취도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37.7%로 비교적 높았으며,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장입양아동은 영아입양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과 아동의 자존감, 학교적응수준은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과 주요 영향요인은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교과목에 일관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아동의 자존감과 학교급 변수였다. 자존감은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영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서 학교급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발달영역에서 입양아동 발달결과의 유의미한 예측인자인 입양 당시 연령(연장아 여부)은 5개 교과목 중 수학교과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학교적응수준과 모의 학력은 국어와 영어 등 어학과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이나 사용어휘의 수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서 자존감이 높은 아동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이경아·정현희, 1999; 김종한, 2001; 김기에·김소은, 2005, 김현주·김병훈, 2007, 재인용)와 일치한다.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의 관계는 일방적이거나 인과적이기보다는 상호적인 것이어서, 이전의 학업성취 경험이 이후의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이전의 학업성취를 통제한 이후에도 이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게 된다(Kornilova et al., 2009). 따라서 아동의 자존감도 학업성취도와 이러한 상호 보완적(mutually reinforcing) 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모든 교과목에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전체 학업성취도 및 수학과 과학과목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자존감 등 다른 변수를 통한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해 다루고, 관련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시도했으며, 특히 전체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주요 교과목별로 영향요인들을 밝히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가 중학교 진학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원인을 밝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교 진학 이후의 성적은 아동의 고등교육 진학률과 이후의 진로 및 기대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친생부모에 대한 애도와 상실, 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등 입양관련 발달과업들이 이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령기 입양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상호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또래모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에

다소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아동이 졸업 이후의 진로를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진로탐색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입양아동들은 여러 교과목 중 특히 수학교과목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학교과목의 주요 영향요인은 아동의 자존감과 연장이 여부이다. 따라서 연장이동을 입양한 가정의 경우, 아동의 학업성취를 도울 수 있는 부가적인 지원 방안(학습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양아동의 자존감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이자 아동의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이기도 하다. 공개입양 가정의 아동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입양아동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들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입양아동들은 입양인으로서의 지위와 자신의 부모와 닮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처해가는 과정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 위험이 있다(Christoffersen, 2012). 따라서 입양아동들이 성장하면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지 않도록 영유아기부터 입양사후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양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어주고, 상호지지의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입양인으로서의 발달과업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입양아동은 학교에서 친구들과로부터 입양사실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교사가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입양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입양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학령기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놀림이나 편견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는 방법과 아동대상 프로그램 또는 또래아동 프로그램을 통해 대처방법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편견입양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일반아동 및 교사가 갖고 있는 입양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입양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일반아동과 비교했으나, 입양이 아동발달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이 입양되지 않았을 경우 살게 될 환경인 시설이나 위탁보호 등 다른 대리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보다 적절한 비교집단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료의 한계로 인해 시설아동이나 위탁가정 아동 등과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추후 다른 대리보호체계 내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특성 및 환경 요인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2차 자료상의 한계 및 적은 사례수로 인해 관련 변인들을 모두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못했다. 향후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하는 연구모형을 적용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지성·안재진·최운선, 2014, “입양부모가 경험한 입양가정 내 형제관계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8: 55-88.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변미희·임성은, 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주·김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박미정, 2009, “국내 공개입양의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3): 69-98.
- 변미희·권지성·안재진·최운선, 2009, “국내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4): 261-279.
- 변미희·안재진·강지현, 2015,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서울: 중앙입양원.
- 보건복지부, 2015, “입양 및 가정위탁통계”, <http://www.mohw.go.kr>.
- 안재진, 2013, “국내 공개입양가정의 입양 의사소통 모형 개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1: 1-38.
-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 2009, “국내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개입양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9: 187-219.
-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 2010, “공개입양가족의 입양 관련 의사소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43-171.
-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 2015b,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 2015년 5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중앙입양원
- 안재진·변미희·권지성·최운선, 2015a, “입양모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이 양육역량을 매개로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3): 19-34.
- 최운선·안재진·변미희·권지성, 2008, “입양아동의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II : 1차년도 자료의 사회성발달과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2(4): 473-502.
- 최운선·안재진·변미희·권지성, 2016,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특성 관련변인 탐색”, 『인간발달연구』, 23(4): 181-196.
- Ahn, J., Byun, M. H., and Kwon, J. S., 2017, “Trajectory of problem behaviors of Korean adopted children: Using piecewise 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ling”,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22: 461-471.
- Ahn, J. J., and Lee, B. J., 2012, “The effects of adoption disclosure on the adaptation of Korean adoptive familie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2(1-2): 90-103.
- Bohman, M., and Sigvardsson, S., 1980,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registered for adoptions: A 15-year follow-up”,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1: 339-355.
- Brodzinsky, D. M., Radice, C., Huffman, L., and Merkler, K., 1987, “Prevalence of clinically significant symptomatology in a nonclinical sample of adopted and nonadopt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6): 350-356.
- Brodzinsky, D. M., Smith, D. W. and Brodzinsky, A. B., 1998, *Children's Adjustment to Adoption: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Thousand Oaks, CA: Sage.

- Brodzinsky, D. M., Schechter, D. E., Braff, A. M., and Singer, L. M., 1984,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adopt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582-590.
- Brodzinsky, D. M., Schechter, M. D., and Henign, R. M., 1992, *Being Adopted: The Lifelong Search for Self*, New York: Anchor Books.
- Christoffersen, M. N., 2012, "A study of adopted children, thei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Adoption Quarterly*, 15: 220-237.
- Fergusson, D. M., Lynskey, M., and Horwood, L. J., 1995, "The adolescent outcomes of adoptio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6(4): 597-615.
- Howard, J. A., Smith, S. L., and Ryan, S. D., 2004, "A comparative study of child welfare adoption with other types of adopted children and birth children", *Adoption Quarterly*, 7: 1-30.
- Kornilova, T. V., Kornilov, S. A., and Chumakova, M. A., 2009, "Subjective evaluations of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concept predict academic achievement: Evidence from a selective student popul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596-608.
- Maughan, B., Collishaw, S., and Pickles, A., 1998, "School achievement and adult qualifications among adoptee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9(5): 669-685.
- Miller, B. C., Fan, X., Christensen, M., Grovetvant, H. D., and van Dulmen, M., 2000, "Comparisons of adopted and nonadopted adolescents in a large,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Child Development*, 71(5): 1458-1473.
- van Gulden, H., and Bartels-Rabb, L. M., 1996, *Real Parents, Real Children: Parenting the Adopted Child*, Newport: Crossroad Publishing
- van Ijzendoorn, M. H., and Juffer, F., 2005, "Adoption is a successful natural intervention enhancing adopted children's IQ and school performa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6): 326-330.
- van Ijzendoorn, M. H., Juffer, F., and Poelhuis, C. W. K., 2005, "Adoption and cognitive development: A meta-analytic comparison of adopted and nonadopted children's IQ and school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131(2): 301-316.
- Whitten, K. L., and Weaver, S. R., 2010, "Adoptive family relationships and healthy adolescent development: A risk and resilience analysis", *Adoption Quarterly*, 13: 209-226.

Factors Affecting the School Achievement of Domestic Adopted Children in Korea

Ahn, Jae-Jin

(Gachon University)

Choi, Woon-Sun

(Namseoul University)

Byun, Mi-Hee

(Baekseok University)

Kwon, Ji-Su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chool achievement of domestic adopted children in Korea and its related factors. Although the developmental outcomes of domestic adopted children were the focus of research interests, their school achievement has never been fully addressed in Korea. The subsample (9-17 years old) of 5th wave data of <Panel study on the Korean adopted children>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chool achievement level of domestic adopted childre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ir non-adopted peers during elementary school years except the mathematics, but changed drastically after they entered the middle school, showing significantly lower level from their non-adopted peers. Factors related with the overall school achievement were the level of school, maternal education, age at adoption, child'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For specific subject, however, significant factors were found to be somewhat differ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practical guidelines to improve the school achievement of adopted children were suggested. Also, suggestions for the following studies were made.

Key words: domestic adopted children, school achievement, Panel study on the Korean adopted children

[논문 접수일 : 17. 03. 31, 심사일 : 17. 04. 12, 게재 확정일 : 17. 06. 10]